



국내 최대 풍력발전사업 공사중지명령

도 세계유산본부 “12필지 문화재 지표 조사 누락 확인” “허가 구역 외 절대보전지역 무단 공사”... 시, 수사 의뢰

제주도가 절대보전지역 무단 훼손과 문화재 지표 조사 누락 의혹에 휩싸인 제주한림해상 풍력발전사업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경찰도 이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하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이르면 2일쯤 제주한림해상풍력 주식회사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한림해상 풍력발전사업은 제주도 한림읍 수원리 일대 547만㎡ 부지에 5300억원을 들여 5.56MW (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 18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풍력발전기 18개를 가동해 얻는 전력은 100MW로 286가구 (4인 가족 기준)가 1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다. 국내 해상 풍력발전 사업 중

발전 규모가 가장 크다. 공사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시작해 현재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변전소 구축과 해상풍력 발전기가 생산한 전력을 육상으로 보내는 용도의 케이블 매립 등 육상 구역 내 공사는 대부분 완료됐고, 해상 구역 공사만 일부 남아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목표한 준공 시점은 오는 10월이다.

그러나 준공을 3개월 앞두고 한림해상 풍력발전사업 공사는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도 세계유산본부(이하 본부)에 따르면 한림해상 풍력발전사업은 공사 규모가 3만㎡ 이상이기 때문에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부지 내에 보존할 만한 문화재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문화재 지표 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국

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본부 측 조사 결과 사업 부지에 속한 12필지, 면적으로 따지면 약 2700㎡에서 문화재 지표 조사가 누락됐다.

본부 관계자는 “사업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사 시행 도면과 문화재 지표 조사 보고서 상 도면을 비교 분석하고, 현장 조사를 한 결과 12필지에서 조사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쯤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국가유산청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여 지표 조사 누락 구간에 대한 보존 대책 등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림해상 풍력발전 사업자 측은 절대보전지역을 무단 훼손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달 26일 사업자 측이 절대보전지역에서 허가 없이 공사를 했으며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국전력기술회사가 작성한 한림

해상 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사업 지구가 속한 한림읍 내 절대보전지역은 1.3km로, 이중 사업자 측은 1300㎡에서만 공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제주도 조사 결과 절대보전지역 내 공사 면적은 이보다 200여㎡가 넓은 1500여㎡였다.

특히 사업자 측은 이미 허가 구역 외 벗어난 곳에서 터파기와 케이블 매립 공사를 마쳐놓고 지난해 11월 뒤늦게 더 넓은 절대보전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싶다는 변경 허가 신청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을 무단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업자 측 관계자는 절대보전지역 무단 훼손 의혹과 문화재 지표 조사 누락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수사·조사 기관에 소명하겠다”며 “현재로서는 답변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국립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

4·3트라우마센터 계승... “국가폭력 상처 치유”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가 개소, 국가폭력으로 인한 오랜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는다. 2020년 5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제주4·3트라우마센터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출연기관으로서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제주도 나리키움에서 국립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오영훈 제주지사,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상봉 도의회 의장, 차호준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원장, 오수경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장을 비롯한 4·3 관련 기관·단체, 센터이용자 등이 참석

했다. 오 지사는 “4·3유족과 제주도민의 숙원이 이뤄진 만큼 과거의 아픔을 직시하고 치유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도교육청 직원들이 1일 도교육청 본관 국기게양대에서 상징물 선포식을 가진 후 새로운 교육기를 개양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도교육청 40년 만 새 심벌마크 도입

어제 교육청기 개양식... 김광수 교육감 취임 2주년 행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1일부터 40년 만에 새로운 교육청 심벌마크를 공식적으로 사용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도교육청

본관 국기게양대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징물 선포식을 갖고 새로운 교육기를 개양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40년 만에 바뀌는 심벌마크를 최종 확정했으며, 올 상반기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1일)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상징 깃발인 교육기는 ‘jeju’와 ‘education’의 이니셜 ‘j’, ‘e’가 서로 나란히 연결된 형태

를 통해 함께 소통하며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아이들을 표현했다.

아울러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은 김광수 도교육감은 교육기 개양식을 진행한 뒤 광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방문해 유아 책 읽어 주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김 교육감은 봉사활동을 마친 후 광명초 학교 관계자,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학교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제안을 듣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제주아트센터에서 교육청과 제주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위대한 도민시대, 함께 그리는 새로운 미래’ 행사에 참가해 교육행정의 성과를 공유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독자 제보 750-2232

제주120만덕콜센터 소통 창구 역할 ‘톡톡’

지난해 총 48만5210건 상담... 하루 평균 1329건 처리

개소 13주년을 맞는 제주120만덕콜센터가 제주의 대표적인 민원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콜센터의 상담 실적은 총 48만5210건으로, 하루 평균 1329건의 문의를 처리했다. 특히 콜센터에서 직접 처리하는 민원상담률은 87.2% (42만2950건)에 달했고, 나머지 문의 중 12.5% (6만 402건)는 담당자 연결로, 0.3% (1,807건)만이 처리부서로 이관돼 처리되는 등 도정과 도민, 관광객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소통 채널로 자리매김했다.

120콜센터는 35명 (상담사 30명, 강사 등 5)의 관리인력이 연중 무휴로 근무하며,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속, 정확, 친절을 모토로 도민 등의 다양한 문의와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제주도는 1일 제주120만덕콜센터 교육장에서 개소 1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데 기여한 공로로 오선에 센터장과 송영민 상담사에게 제주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120만덕콜센터는 도민과 행정 사이의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친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로 도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운기자 lty9456@ihalla.com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보청기 제품비용) 20,000원 (후기 적합관리비용)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 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멍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이 제품은 '영광가7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자선심리 심의번호 2010-GN98009

WIDEX®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박사 수료 산학협력 교수 전문 청능사 언어 재활